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359-388  
<https://doi.org/10.29212/mh.2019..110.10>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인천상륙의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과 그 함의

이상호\*

1. 서론
2. 인천상륙작전의 예비계획과 작전 준비과정
3. 군수참모부 작전 계획(LD-SL-17)과 크로마이트 계획과의 연관성
4.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의 내용과 차이
5. 결론

## 1. 서론

한국전쟁은 북한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이었다. 북한의 기습에 대해 미국은 즉각적으로 전쟁에 개입했고, 이렇게 미국의 전격적인 전쟁개입은 전쟁을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변화시켰다. 미국 참전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 북진정책을 통한 북한으로의 반격이 가

\*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능해졌고, 전쟁의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점이 이 작전이 갖는 커다란 의미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제까지 발표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전쟁의 발발과 상륙작전의 준비과정, 상륙작전 지역을 둘러싼 논쟁과정, 상륙작전의 전개과정, 상륙작전의 결과, 상륙작전이 갖는 전사적 의미 등 인천상륙작전의 구체적 진행과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sup>1)</sup>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인천상륙작전을 둘러싼 이면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sup>2)</sup>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분류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 초기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전환점으로 인천상륙작전을 평가하는 견해이다.<sup>3)</sup> 물론 이러한 주장은

- 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 낙동강방어작전기』,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인천상륙작전』,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국방군사연구소, 1995; Robert D. Heinl, “The Inchon Landing: A Case Study in Amphibious Planning”, *Naval War College Review*, Spring 1998;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제2호, 국방군사연구소, 1999; 서주석, 「인천상륙작전의 결정경위와 전개과정」,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2000; 송인영,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평가 및 의의」,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2000; Allan C. Bevilacqua, “Inchon, Korea, 1950-The Landing that couldn't be done”, *Leatherneck*, September 2000; Jeffery A. Bradford, “MacArthur, Inchon and the Art of Battle Command”, *Military Review*, Mar/Apr. 2001; Rod Paschall, “A bold Strike at Inchon”, *Military History*, 2002; Malcolm W. Cagle·Frank A. Manson, 신형식 역, 『한국전쟁해전사』, 21세기 군사연구소, 2003; Jim Dorschner, “Douglas MacArthur's Last Triumph”, *Military History*, September 200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 2) 오동룡, 「켈로 부대장 최규봉 옹의 ‘인천상륙작전 비사」, 『월간조선』 제24권 9호, 월간조선사, 2003년 9월; 조화유,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클라크 대위의 수기」, 『월간조선』 제26권 10호, 월간조선사, 2005년 10월; 이동원, 「미군의 월미도 원주민 학살사건」, 『말』 통권 265호, 월간 말, 2008년 7월; 이의환,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진 월미도 원주민들의 아픔」, 『황해문화』 통권68호, 새얼문화재단, 2010년 가을; 이상호·박성진, 「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정보 작전」,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년 가을.

인천상륙작전이 완전한 기습작전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둘째, 인천상륙작전은 이미 북한 군부에 의해 예견되었으며, 중국과 소련도 미국의 상륙작전을 예상하여 이를 미리 북한에 알려주었으나, 낙동강 돌파와 경인지구 사수의 선택문제에서 북한 지도부가 낙동강 돌파를 우선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 그동안 주장되던 기습작전이 아니라 북한의 전술상의 실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sup>4)</sup>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의 작전 계획, 즉 크로마이트 작전(Chromite Operation) 계획 자체에 대해서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문제는 기존 연구서의 정리 차원에서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은 3가지인데 바로 100-B, 100-C, 100-D라고 알려져 있다.

먼저 미 육군군사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애플맨(Roy E. Appleman)

- 
- 3) 김현기,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이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 『군사논단』 17, 한국군사학회, 1999년 1월;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2, 국방군사연구소, 1999년 12월; 견수찬,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논의의 검토」, 『인천역사』 제1호,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소, 2004년 가을; 이선호, 「9·15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평가」, 『북한』 통권 405호, 북한연구소, 2005년 9월; 이상호,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군사』 제59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6월; 조성훈,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한 맥아더 역할의 재평가」,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년 가을; 김광수, 「인천상륙작전과 북한군의 대응」, 『군사연구』 제130집, 육군본부, 2010년 12월.
- 4) 박명림, 「한국전쟁: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1) - 1950년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략연구』 통권 10호, 1997; 박명림, 『한국 1950-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출판, 2002); 박명림, 「열전의 인천 1950년, 그리고 평화의 인천 2005년: 두 인천의 역사적 조망의 몇몇 비교범주들」 『제4회 월미평화포럼-황해,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 교류의 바다로』 (2004년 9월 17일); 조상근, 「한국전쟁에서 중공 지도부의 인천상륙작전 예측과정」, 『군사』 제71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년 6월.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미 북한노획문서를 통해 당시 현지 북한군 부대의 준비소홀, 무기 지급의 미흡 등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북한군의 적절한 대응이 거의 없었음이 밝혀졌다.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이상호,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군사』 제59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6월.

과 슈나벨(James E. Schnabel) 등 대부분의 저서에서는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을 3개로 규정하며 (1) 100-B 계획은 서해안 인천, (2) 100-C 계획은 서해안 군산, (3) 100-D 계획은 동해안 주문진을 상륙작전 예정지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sup>5)</sup> 이들의 저서에 따르면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은 3가지로 각각 별개의 작전 계획으로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슈나벨이 당시 합동전략기획단(JSPOG: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 단장인 라이트(Edwin K. Wright)와의 대담에서 확인한 정보로는 상륙 작전 계획에는 원산과 진남포에도 상륙할 계획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sup>6)</sup>

국내 연구서에도 인천상륙작전의 상륙계획인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에 대한 설명에서 100-B, 100-C, 100-D등 작전 계획 3가지만을 언급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듯이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 100-A가 있지 않았을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서들은 왜 작전 계획 100-A에 대해 소개하지 않았을까? 작전 계획 100-A에

5)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 489; James Schnabel,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pp. 141~142; 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50-1951: They came from the north*(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pp. 207~210;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1953*(New York, Times Books, 1987), p. 87.

6) James Schnabel, *Ibid.*, p. 142.

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 낙동강방어작전기』,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70, 625~626쪽;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35~36쪽; 고지마노보루 저·유승호 역, 『한국전쟁 전모 제1보』, 송산출판사, 1988, 239~240쪽;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4권 - 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전쟁기념사업회, 1992, 17~18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국방군사연구소, 1995, 393~394쪽;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101~102쪽;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399~400쪽.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공개하지 못할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 그리고 각각의 작전 계획이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구상하고 준비되었을까?

본 논문은 맥아더기념관 소장 문서를 바탕으로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의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4가지 작전 계획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전쟁 직전에 준비되었던 우발계획 SL-17(전쟁초기인 7월 LD-SL-17로 발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기본 자료는 맥아더기념관 소장 문서 RG 6, RG 38과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RG 165 및 RG 319 자료를 활용하였다.<sup>8)</sup>

## 2. 인천상륙작전의 예비계획과 작전 준비과정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 작전이 1950년 6월 당시에 구상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계획된 것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1944년 태평양 전쟁에서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남서태평양사령부와 니미츠(Chester W. Nimitz)의 태평양사령부가 구상했던 일본 공략 계획인 블랙리스트 작전에서부터 1950년 6월 전쟁 직전에 도상계획으로 준비된 SL-17문서(이후 전쟁 초기 LD-SL-17로 보완)까지

8)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FECOM), 1947-1951; MA, RG 38, Papers of LGEN Edward M. Almond, Chief of Staff, SCAP, Commanding General, X Corps, FECOM;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Office of the Director of Plans & Operations, Top Secret : American-British-Canadian Correspondence;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다양한 계획이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태평양전쟁의 도상계획을 재구성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웨인트롭(Stanley Weintraub)의 주장을 살펴보자. 웨인트롭은 이미 미 국방부 작전참모부장(G-3)인 볼테(Charles L. Bolte)가 전쟁 직전 북한의 남침을 예상한 다양한 우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주장했다.<sup>9)</sup> 물론 이 작전 계획 가운데에는 북한의 남침을 소련의 對아시아 전쟁의 하위 수준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인을 소개하고 전쟁 준비를 위한 미군의 긴급 준비 태세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작전 계획이 확인된다.

웨인트롭에 따르면 비록 국방부의 하위수준에서 제시된 구상은 아니지만,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부 참모진 가운데 1~2명이 1944년에 작성된 연구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들고 있다. 즉 “일본과 대만에 대한 작전(Operations against Japan subsequent to Formosa)”이라고 칭하는 합동참모본부 계획 JCS 924의 부록 B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전의 상세 자료가 없었다면, 맥아더는 그렇게 짧은 기간에 크로마이트 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웨인트롭은 평가했다.<sup>10)</sup> 하지만 미 합동참모본부가 기안한 JCS 924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계획이 인천상륙작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부록 B를 확인하면 한국에 대한 상륙지역을 다양하게 언급하면서 인천 지역 역시 그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을 뿐, 인천지역의 지정학적인 분석을 한 것은 아니었다.<sup>11)</sup> 오히려 후술할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천상륙작전 계획의 근간이 되는 인천지역

9) Stanley Weintraub, *MacArthur's War: Korea and the undoing of an American Hero*(New York: The Free Press, 2000), p. 106.

10) Stanley Weintraub, *Ibid.*, p. 107.

11) “Operations against Japan subsequent to Formosa”(JCS 924, 1944. 6. 30),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Office of the Director of Plans & Operations, Top Secret : American-British-Canadian Correspondence, Box 454.

에 대한 정찰 자료는 JCS 924의 부록 B보다는 1949년에 미 육군 항공대와 미 해군에서 수행한 자세한 정보가 그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sup>12)</sup>

그럼 먼저 기존에 알려져 있던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의 작성 배경에 대해 공간사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을 때 미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89개 사단은 1950년에는 7개 보병사단과 2개 공정사단, 1개 기갑사단으로 줄어들었다. 완전편제를 갖추었을 때 미군 1개 사단은 병력이 1만 8,804명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각 사단의 병력은 1만 1,000~1만 3,650명에 불과했다. 해병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 6개였던 해병사단은 약화된 2개 사단으로 줄었다.<sup>13)</sup>

1950년 6월 맥아더 장군의 전투 병력은 일본에 있는 4개의 보병사단과 7개의 대공포대대, 오키나와에 있는 1개의 보병연대와 2개의 대공포대대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 주 전투부대는 일본 혼슈에 있는 제1기병사단과 도호쿠 및 홋카이도에 위치한 제7보병사단, 큐슈의 제24보병사단, 혼슈 서부에 위치한 제25보병사단과 오키나와에 있는 제9대공포 여단이었다. 맥아더사령부 산하 주 전투부대인 미 제8군은 1950년 6월 당시 인가 병력의 93%를 보유하고 있었다.<sup>14)</sup>

1950년 6월 29일 전쟁이 발발하고 난 4일 후 한강변을 시찰한 맥아더는 사단 규모의 병력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조기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는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맥아더는 작전참모부장 라이트 장군을 중심으로 육군, 해군, 공군에서 장교 8명을 차출하여 1949년 8월 창설한 합동전략기획단에 작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

12)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FECOM), 1947-1951, Box 103.

13) 고든 L. 리트먼 지음·김홍래 옮김, 『인천 1950』, 플래닛미디어, 2006, 15~16쪽.

14) James Schnabel, F., *op. cit.*, p. 80.

시켰다.<sup>15)</sup> 7월 4일 육, 해, 공군 대표자가 극동군사령부 회의실에 참석하여 맥아더 원수 및 알몬드 장군과 상륙지점에 관해 토의를 하였다.<sup>16)</sup> 이 자리에서 합동전략기획단은 미 제1기병사단을 주축으로 미 해병연대전투단을 상륙부대로 하고, 이와 동시에 전선 남쪽에서 미 제24사단 및 제25사단의 반격작전을 감행하는 ‘블루하츠(BLUEHEARTS)’ 작전 계획을 공개하였다. 7월 6일 맥아더는 제1기병사단장 게이(Robert R. Gay)소장에게 인천 지역에 대한 상륙준비를 지시하였다.<sup>17)</sup> 공격일은 7월 22일로 정하였다.<sup>18)</sup> 하지만 북한군의 급속한 공격 속도와 진격 때문에 7월 10일 블루하츠 계획은 취소되었다.<sup>19)</sup>

7월 23일 라이트 장군은 맥아더 원수의 지시에 따라 총사령부 각 참모부에 작전 계획 크로마이트(Chromite)를 회람시켰다.<sup>20)</sup> 맥아더 장군은 최우선 지역으로 인천지역을 선정하였으나, 동시에 다른 지역의 가능성도 연구하도록 지시하였다. 합동전략기획단은 인천을 비롯하여 서해안의 군산·해주·진남포 및 동해안의 원산·주문진 등 가능한 모든 해안 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맥아더는 구체적인 정보를 삭제한 단순한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며 9월 15일에 크로마이트 작전을 실행할 것임으로 통보했다.<sup>21)</sup> 맥아더는 이 보고서에서 “기습은 전쟁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이 아시아 전쟁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면, 유럽의 운명은 위협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 작전의 성공으로 10만 명의 유엔군 목숨을 건져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상륙작전

15) D. Clayton James, *The Years of MacArthur, Volume III—Triumph and Disaster 1945–1964*(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5), p. 448.

16) Roy E. Appleman, *op. cit.*, pp. 488~489.

17) Roy E. Appleman, *Ibid.*, p. 196.

18) D. Clayton James, *op. cit.*, p. 465.

19) James Schnabel, F., *op. cit.*, p. 192.

20) Roy E. Appleman, *op. cit.*, p. 489.

21) D. Clayton James, *op. cit.*, p. 465.

의 당위성을 강조했다.<sup>22)</sup>

결국 합동전략기획단은 8월 12일 미 극동군사령부 작전 계획 100-B를 하달하였다. 크로마이트 100-B의 목표 지역은 인천-서울 지역이며 D-Day는 9월 15일이였다. 8월 15일 맥아더 장군은 라이트의 건의를 받아들여 임시계획참모진을 편성하였다.<sup>23)</sup> 이들은 극비리에 크로마이트 작전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극동군사령부 참모진으로부터 인원을 차출하여 구성하였다. 이 조직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그 명칭을 특별계획 참모부(Special Planning Staff)라고 명명하였다. 참모장에는 러프너 소장(Clark L. Ruffner)이 임명되었다.<sup>24)</sup>

1950년 8월 23일 도쿄의 사령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는 육군 측에서 맥아더를 위시한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 알몬드(Edward L. Almond) 장군, 라이트 장군이 참석하였고, 해군에서는 셔먼(Forrest P. Sherman) 제독을 비롯하여 조이(Turner C. Joy),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도일(James H. Doyle) 제독이 참석하였다.<sup>25)</sup> 맥아더는 적의 병참선상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인천-서울 지역이고 한국의 수도를 다시 탈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심리적인 이점을 들었다.<sup>26)</sup>

8월 24일 맥아더 장군은 일본군수지원사령부(JLC: Japan Logistical Command)를 미 극동군사령부의 주요편제부대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사령관에 웨이블(Walter L. Weible)장군을 임명했다.<sup>27)</sup> 일본군수사령부 예하에는 요코하마 사령부, 고베 기지 및 제 40대공포병여단이 포함되었다. 일본군수사령부의 임무는 한국작전에 군수지원을 제공하고, 미 제8군의 점령임무를 책임지면서, 일본

22) D. Clayton James, *Ibid.*, pp. 469~470.

2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전투사 - 인천상륙작전』, 37쪽.

24) James Schnabel, F., *op. cit.*, pp. 213~214.

25) James Schnabel, F., *Ibid.*, p. 201.

26) James Schnabel, F., *Ibid.*, p. 202.

27) James Schnabel, F., *Ibid.*, p. 183.

방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군수분야에 있어, 일본군수사령부는 일본에 주둔하면서 (1) 미 육군과 공군에 대한 군수지원(공군의 특정 전문탄약은 제외), (2) 극동군사령부 전 소요에 대한 3종과 3종 A 물자보급, (3) 현지 생산 보급물자의 보급, (4) 현지 조달 보급물자의 인수, 저장 및 불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일본군수사령부는 179명의 장교, 24명의 준사관 및 399명의 병사로 구성되었다.<sup>28)</sup>

맥아더 장군은 8월 26일 공식적으로 제10군단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8월 27일 유엔군사령부의 예하기구로 미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을 통합하여 유엔군총사령관의 지휘하에 두었다. 그리고 9월 1일 최종적으로 인천상륙작전을 크로마이트(CHROMITE)작전이라고 부여하였다.<sup>29)</sup> 그리고 9월 15일 예정대로 100-B계획에 맞추어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었고,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3. 군수참모부 작전 계획(LD-SL-17)과 크로마이트 계획과의 연관성

인천상륙작전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드는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미 육군부 군수참모부(G-4)에서 작성했다는 ‘한반도 작전 대비 군수 연구, LD-SL-17’(Logistic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 LD-SL-17)이다. 이 연구의 첫 번째 계획안이 되는 SL-17을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는 블레어(Clay Blair)였다.<sup>30)</sup> SL-17은 우발계획으로 만들어진 전쟁계

28)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and Eight United States Army, pp. 10~14.

29) Roy E. Appleman, *op. cit.*, pp. 495~496; James Schnabel, F., *op. cit.*, pp. 214~215.

획으로 1950년 6월 19일 미 국방부에 의해 승인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침략을 가정하여 후퇴 후 부산방어선을 구축한 이후 인천에 상륙하는 계획이었다. 블레어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계획을 입안했던 커티스(Donald McB. Curtis)의 회고를 언급하며 미 극동군사령부가 이 우발계획 보고서 50부 가량을 요청하였다고 기술했다.

이를 두고 커밍스도 LD-SL-17에 대해 언급을 했으며<sup>31)</sup>, 박명림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이를 언급하였다.<sup>32)</sup> 그는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작전들이 이 계획서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천상륙작전이 6월 25일 이전에 준비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LD-SL-17의 일부분만을 인용함으로써 그 계획의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자세히 소개하지 못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LD-SL-17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우발계획 SL-17문서는 1950년 6월 19일에 승인되었다고 하지만, LD-SL-17문서는 1950년 7월 25일에 작성된 것으로 차기 작전을 위한 군수연구 프로그램(Mobilization Requirements Program of the Army Logistic Study for Projected Operations)이었다. 이 작전 계획은 군수참모부(G-4)에서 작성된 것으로 7월 29일 작전참모부(G-3)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되돌려졌다. 왜냐하면 작전참모부(G-3)의 분석결과 이 작전 계획의 소요 비용이 수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sup>33)</sup>

군수참모부(G-4)의 전략군수국에서 작성한 LD-SL-17의 초안

30) Clay Blair, *op. cit.*, p. 87; 고든 L. 리트먼 지음·김홍래 옮김, 『인천 1950』, 플래닛미디어, 2006, 73쪽.

31) 브루스 커밍스 지음·김동노 외 옮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1, 365~366쪽.

32) 박명림, 앞의 책, 185~186쪽.

33) "Memorandum for Record: Mobilization Requirements Program of the Army Logistic Study for Projected Operations"(1950. 7. 29),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Draft)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초안은 총 15매로 서론과 5장의 본문,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4)</sup> 초안에서는 이 계획의 목적을 ‘아직 발발하지 않은 전쟁에서 작전 계획의 군수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의 내용은 한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7월의 상황이 언급되고 있음을 통해 볼 때 처음 작성은 6월 25일 이전에 준비되고 있었으나 전쟁이 발발하고 진행되면서 계획의 초안도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계획의 주요 목적은 군수 제4종의 수요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계획에서 작전의 성격을 밝히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북한의 침략으로 현재 장악하고 있는 영토를 회복하고, 북한군을 격멸하며,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작전일(D-Day)의 기준을 북한이 남침한 6월 25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즉, 1951년 6월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이 작전 계획은 이미 작성된 ‘LD-SL-4’인 극동지역의 전략방어(strategic defense)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sup>35)</sup>

이 계획에 따르면 작전 지역은 1950년 7월 31일 경 북한이 광양-오소리-고령-대구-영천-포항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던 7월 31일 경의 낙동강 방어선보다 더욱 축소된 지역이었다. 당시 북한군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엔군의 전반적인 작전은 충분한 병력 증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연작전을 수행하며 남쪽으로 철수하는

34) “Draft: Logistics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1950. 7), Prepared by Strategic Logistics Branch, Plans Office Assistant Chef of Staff, G-4.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35) “Draft: Logistics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1950. 7), Prepared by Strategic Logistics Branch, Plans Office Assistant Chef of Staff, G-4.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Forward.

것으로 주 방어선이 안정되었을 때에 공격으로 전환하여 육상, 상륙 작전, 공수작전 등으로 실지 지역을 되찾고 전 한반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미 공군의 임무는 육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북한 지역을 폭격할 뿐만 아니라 전술 지원을 담당하고, 미 해군은 해상 봉쇄와 육군의 작전에 따른 해안 함포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지상 작전은 미군과 한국군으로 수행하고, 그 이외의 유엔국가 군대는 공군과 해군으로 제한될 것으로 가정했다. 이 계획안에는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 전한반도의 통일을 결의할 것이고, 이 때 한국군은 전체 병력이 약 5만 5천 명으로 5개 사단이 건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북한군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sup>36)</sup>

이러한 가정하에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부산에 사령부를 두고 반격을 위한 병력 증강을 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이후 육상작전·상륙작전·공수작전을 통해 북한군을 격파하고 빼앗긴 지역을 수복하며, 최종적으로 쏘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이다.

자세한 작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개 해병사단과 1개 보병사단으로 구성된 1개 군단으로 인천 지역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9월 30일까지 인천항을 장악하고, 인천 동쪽에 1개 공수연대전투단을 운용하여 한강 지역을 엄호하며 서울을 수복하는 계획이다. 이후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sup>37)</sup>

36) "Draft: Logistics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1950. 7), Prepared by Strategic Logistics Branch, Plans Office Assistant Chef of Staff, G-4.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p. 1.

37) "Draft: Logistics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1950. 7), Prepared by Strategic Logistics Branch, Plans Office Assistant Chef of Staff, G-4.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인천에 사령부 기지를 두고 10월 15일까지는 서울과 김포비행장을 확보한다. 서울과 김포공항을 확보하면 동쪽으로 진격하여 양평, 원주, 평창, 정선, 교거리(삼척) 이남(약 37.5도)의 북한군을 포위한다. 동시에 1951년 1월 31일까지는 동해와 서해에 각각 상륙작전을 시행한다. 1개 해병사단과 1개 공수연대전투단을 서해에 투입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동시에 동해안 원산에 보병사단을 상륙시켜 평양-장림-양덕-원산을 축으로 하여 이 선(대략 39도선) 아래의 북한군을 포위한다. 이후 평양에 사령부를 설치하여 북한 전역을 점령하기 위한 차기 작전을 실행한다.

이것이 작전 계획의 대체적 개략이었다. 이러한 작전 계획의 군수지원을 위해서 한국에 약 11,500명의 공군이 필요할 것이고, 한국군 사단에 대한 군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작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의 증강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군폭격대는 일본의 혼슈, 큐슈, 오키나와에 기지를 두고 전투기와 경폭격기 대대는 한국에 설치하는 것이다. 해군부대는 항구를 통한 수송보다는 육군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고, 육군은 1개 해병사단을 포함하여 5개 보병사단으로 증강해야 했다. 하지만 1개 보병사단은 일본 방어를 위해 일본에 잔류시키도록 했다. 전투지원부대는 전방지대에 35,000명으로 증강하고, 일본의 병참관구(Communication Zone)에 6천여 명을 증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sup>38)</sup>

군수지원 측면에서는 군수 1, 2, 4, 5종은 최소 30일 분을 한국에 비축하고, 3종과 3-A종은 최대 30일 수준까지 비축하며, 석유와 윤활유는 부대 단위로 10일 분을 보급해야 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군수참모부의 자체 평가에서도 LD-SL-17이라는 작전 계획은 군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를 지원할 군수부대의 지원 측면에서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pp. 2~3.

38) "Draft: Logistics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1950. 7), Prepared by Strategic Logistics Branch, Plans Office Assistant Chef of Staff, G-4.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pp. 4~5.

매우 곤란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체적인 작전에 맞춘 군수 4종 보급품(Class IV Supplies)의 장비(건설 축성자재)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sup>39)</sup>

대략 이것이 LD-SL-17의 개략적인 내용이다. 보통 예상하듯이 작전 계획과 실행계획이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살펴본 LD-SL-17계획의 전반적인 흐름도 실제 진행된 작전 계획과는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인천상륙작전 계획은 이미 LD-SL-17뿐만이 아니라 1945년 올림픽 및 블랙리스트 계획에서도 이미 실행계획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극동군사령부는 이전의 작전 계획을 수정하여 실제 작전 계획에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sup>40)</sup>

#### 4.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의 내용과 차이

이번 장에서는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인 100-A, 100-B, 100-C, 100-D 4가지 계획을 상술하고, 각각의 내용과 그 차이점을 분석해 본다.

일반적으로 인천상륙작전의 작전 계획인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을 논할 경우에는 100-B, 100-C, 100-D 이렇게 3가지 작전 계획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전 계획이 서로 다른 상륙작전 지역 - 각각 인천, 군산, 주문진 - 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작전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즉 각각의 작전 계획은 인천상륙작전을 기본으로 하고 낙동강 전선에서 미 8군이 북한군의 전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군산이나 주문진에 상륙

39) "Draft: Logistics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1950. 7), Prepared by Strategic Logistics Branch, Plans Office Assistant Chef of Staff, G-4.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pp. 6~7.

40)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74~80쪽.

작전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럼 먼저 작전 계획 100-A를 살펴보자. 100-A는 북한군이 남한 지역에서 진격을 멈추고 유엔군이 병력을 증강할 수 있는 단계(1단계)와 북한군에 대해 반격을 실시 할 수 있는 단계(2단계)를 거쳐 남한 지역에서 북한군을 격멸하는 단계(제3단계)를 가정한 작전 계획이다. 여기에는 유엔군이 공군과 해군의 우월성을 유지하며 북한군이 소련이나 중공으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sup>41)</sup>

작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유엔군은 D-Day에 미 제10군단이 군산에 상륙하여 대전을 확보하고 부산으로부터 반격하여 대구-김천-대전을 축으로 반격하는 미 제8군과 대전에서 연결, 금강 이남의 북한군을 격퇴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후 군산과 대전 지역의 비행장을 확보하여 차기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미 제10군단의 군수 지원은 일본군수지원사령부(JLC)가 맡아 수행한다. 또한 100-A에는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즉 군산-대전 지역에 투하되거나, 아니면 바다로 군산지역으로 이동하여 미 제10군단을 지원하는 것이다.<sup>42)</sup> 이 계획에는 예비부대로 제3사단을 배치하고 극동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부산이나 군산지역의 미 제8군이나 미 제10군단을 증강하도록 예정되었다. 작전 예정일은 9월 15일이다.

100-A 계획에서 사용된 관련 자료로는 1949년 12월 1일 작성된 정보보고서인 수시보고(Spot Reports)가 활용되었다. 이 계획에는 포로와 피난 및 노획문서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적의 지상군이나 해군 및 공군의 포로 심문은 미 제8군에 배속된 ADVATIS(연합국번역통역국 전선파견대)<sup>43)</sup>에서 수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다.

41)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3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 1.

42)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3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p. 2~4.

43) 연합국번역통역국 전선파견대(ADVATIS)는 다음 논문을 참조. 이상호, 「한국

또한 모든 심문보고서의 복사본 생산과 배부를 위해 도쿄의 극동군 사령부 번역통역국으로 이송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모든 노획문서도 즉시 도쿄의 번역통역국으로 제출하도록 지시되었다.<sup>44)</sup>

100-A 계획의 달성 목표는 1950년 6월 25일 승인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이에 따른 미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에 따라 남한에서 북한군을 일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충분한 군사적 지원을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남한에서 북한군을 군사적으로 패퇴시켜 그들을 축출한 후에도, 38선 이북에 존재하는 군사력의 존재가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의 입장에 만족할 만한 해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은 결국 남한 지역에서 북한군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sup>45)</sup>

주요 임무로는 적의 군사력 중심지의 후방인 대전의 병참지역에 상륙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미 8군에 가해지는 적의 공격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주요 작전의 장애로는 바로 날씨와 열악한 항구시설이 거론되었지만 강력한 적의 반격은 예상되지 않았다. 주요 투입부대로는 미 제1해병사단과 제2공병 특수여단, 미 제7사단,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이고 예비 병력으로 미 제3사단의 배속이 예정되었다.<sup>46)</sup>

단계별 작전으로는 D-Day나 그 전에 미 제8군이 김천-대전 축

---

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 제109호, 한국역사연구회, 2018년 9월.

44) “Annex B, Intelligence,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15),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p. 1~5.

45)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3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p. 1~2.

46)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3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 2

선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이 때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해병사단이 군산에 상륙작전을 전개하며, 후속부대로 제2공병 특수여단과 미 제7사단이 차례로 상륙한다. 이어 미 제10군단은 50마일 내륙에 위치한 대전을 점령하고, 미 제8군과 연결하기 위해 김천 쪽인 남서쪽으로 공격한다. 이후 작전은 대전-서울 축을 따라 북진하거나 제2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sup>47)</sup>

지휘관계로 미 제10군단은 미 제8군과 합류할 때까지 극동군사령관에 직속된다. 이후는 미 제8군 사령관의 지휘권에 귀속된다.<sup>48)</sup> 이후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은 극동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다.<sup>49)</sup>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던 100-A는 유엔군사령부 작전참모부에 따르면 100-B를 위한 양동작전(feint) 계획의 일환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두 번째로 100-B 계획을 살펴보자. 이 계획은 실제 인천상륙작전으로 실행되었기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므로 그 개요만 간단하게 정리한다.<sup>50)</sup> 100-B 계획은 1950년 8월 12일 준비가 시작되어 수정을 거쳐 24일에 완성되었다. 이 계획은 극동군사령부 예비부대와 미 제1해병사단을 상륙작전에 동원하여 인천-서울 지역을 탈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군의 주요 병참선을 차단하고 남쪽의 병력 증원을 막는 것이다. 이 때 미 제8군은 남쪽으로부터 공격

47)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3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p. 3~4.

48) “Catalogue of Plans and Orders”, MA, RG 38, Papers of LGEN Edward M. Almond, Chief of Staff, SCAP, Commanding General, X Corps, FECOM, Box 3, Folder 2, G-3 Summary, p. 8.

49) “Annex H, Command Rel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3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 1.

50)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 to 30 September, 1950”, MA, RG 38, Papers of LGEN Edward M. Almond, Chief of Staff, SCAP, Commanding General, X Corps, FECOM, Box 3, Folder 1.

을 개시하여 대구-대전-수원 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진출하고, 서울에서 상륙부대와 연결하는 것이다. 100-B 계획의 주요 목적은 북한군을 서울-인천 이남에서 격퇴하는 것이다. 상륙부대의 조직과 임무는 1950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1호에 의해 부여되었는데, 우선 상륙부대인 미 제10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 미 제7보병사단, 제92야포대대 및 제96야포대대 등으로 구성되었고, 임무는 인천-서울 지역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00-C 계획을 살펴보자. 100-C는 유엔군사령관 작전명령 1-50에 따라 수립되었다. 이 작전 계획은 100-B와 마찬가지로 미 제10군단이 인천 지역에 상륙을 감행한다. 그러나 만일 미 제8군의 반격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김천-대전 지역으로 북서 진출에 실패할 경우 M-Day(개전일)에 미 제8군으로부터 1개 사단을 차출, 군산지역에 상륙, 대전을 장악함으로써 미 제8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sup>51)</sup>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은 군산과 대전지역에 투하되어 작전을 실행한다.<sup>5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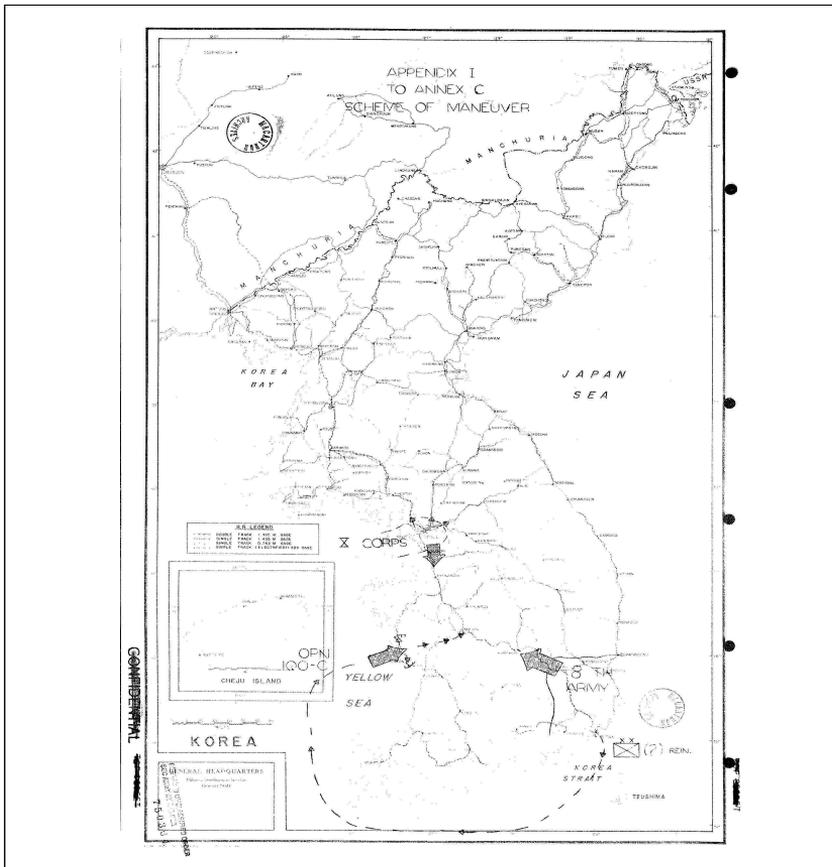
100-C의 작전개념은 다음과 같다. 작전명령 1-50에 따르면 유엔군은 적이 점령한 지역에 깊게 침투하여 서울의 병참지역을 장악함으로써 미 제8군의 대규모 공격과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작전은 부산으로 1개 사단을 이동시켜 미 제8군의 전방에 주둔한 적의 후방지역에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군산의 상륙은 적군의 주요 병참 중심지인 대전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으로 그 목적은 미 제8군 전방에 위치한 적의 주요 보급선을 차단하고 미 제8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었다.<sup>53)</sup>

51)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1950. 9. 8),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3, p. 1.

52)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1950. 9. 8),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3, p. 3.

53)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제한요소로는 상륙부대의 규모가 1개 사단에 지나지 않은 소규모라는 것으로 만일 적의 저항이 완강하면 교두보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전을 장악한 상륙부대는 남서쪽인 김천지역으로의 공격을 지속하도록 계획되었다.<sup>54)</sup>



[그림 1] 크로마이트 작전 100-C

100C(1950. 9. 8),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3, p. 1.

54)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1950. 9. 8),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3,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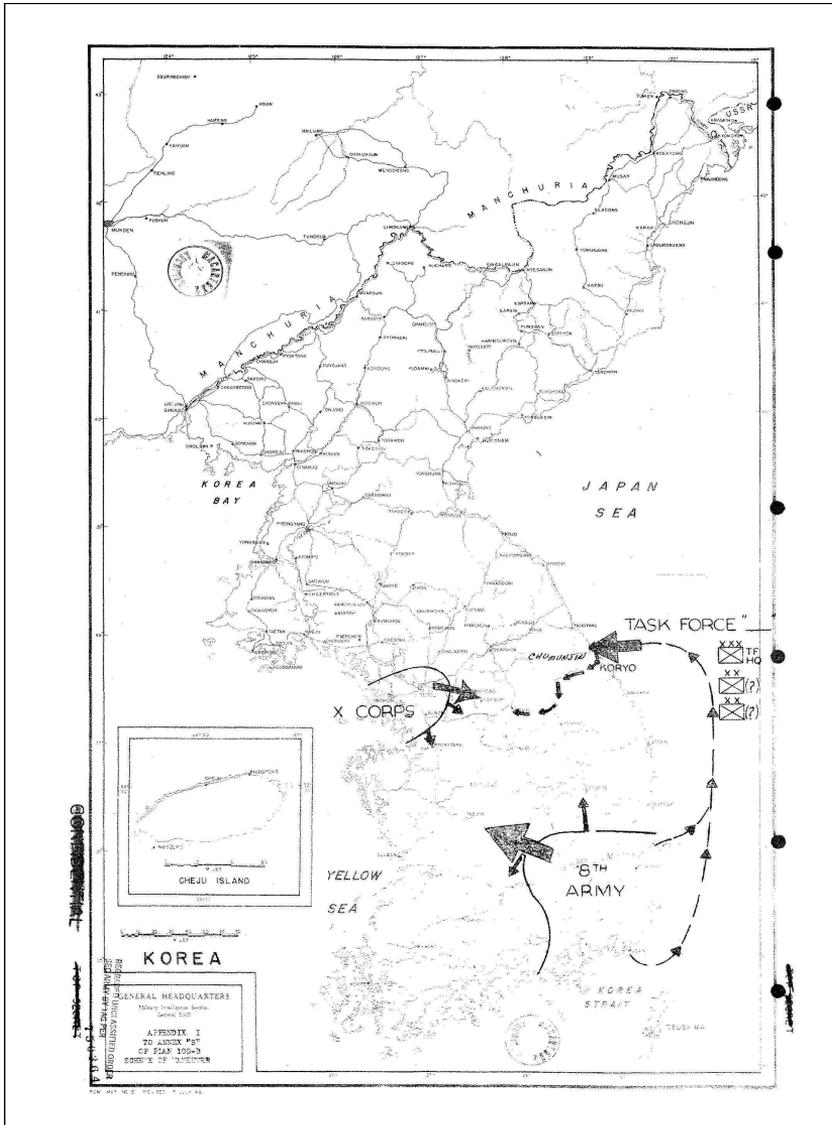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100-D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00-D는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1호의 지시에 의해 준비되었다. 작전에 기반이 되는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미 제10군단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의 병참 중심부를 장악한 후 북한군을 차단하는 것이다. 다만 미 제8군의 주요 장애로 험난한 지형과 게릴라 작전을 들고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군은 소련이나 중공으로부터 주요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예상되었다.<sup>55)</sup>

100-D 작전 계획은 미 제10군단이 인천지역에 상륙하고 미 제8군은 대구-김천-대전을 축으로 북서방향으로 공격을 지향하며 북한군을 격퇴하는 것이다. 여기에 강릉과 주문진 지역에 2개 사단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부대를 상륙시켜 동해안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서쪽과 남서쪽으로 공격을 감행한다. 상륙부대는 미 제8군으로부터 2개 사단을 차출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혹은 두 개 사단 모두 한국군을 활용하는 것이다. 결국 미 제10군단과 이 특수임무부대는 중부지역에서 연결하여 북한군을 포위하고, 남으로부터 북상하는 미 제8군과 연결하는 것이 작전의 주요 내용이다.<sup>56)</sup>

작전 개념으로는 다른 작전 계획과 마찬가지로 1950년 6월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미 합동참모본부 가 극동군사령부에 지시한 북한군의 격퇴를 위해 한국군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주요 상륙부대로는 최근 영덕으로부터 철수한 한국군 제3사단이 보여주었듯이 한국군 사단을 상륙정을 통해 주문진에 상륙시키는 것이다. 주요 제한 요인으로는 북한군의 낙동강 돌파 시도가 치열한 상황에서 과연 미 제8군으로부터 가용 병력을 빼낼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sup>57)</sup>

55)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1950. 9. 11),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4, p. 1.

56)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1950. 9. 11),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3, pp. 2~3.



[그림 2] 크로마이트 작전 100-D

57) "Annex B,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950. 9. 11),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3, pp. 1~2.

이상으로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 100-A, 100-B, 100-C, 100-D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는 각각의 작전 계획의 목표와 운용병력, 상륙지역 등을 구분한 것이다.

[표 1]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의 비교

	100-A	100-B	100-C	100-D
작전 계획의 목표	군산지역 상륙을 통한 금강선에서 북한군 섬멸	인천지역 상륙을 통해 서울을 수복하고 그 이남의 북한군을 포위 섬멸	인천지역에 10군단을 상륙시키고 8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군산에 추가 상륙하여 대전 장악	강릉-주문진 지역에 특수임무부대 2개 사단을 상륙시켜 북한군을 포위하고 북진하는 8군과 연결하여 섬멸
운용병력	10군단, 187공수연대전투단 예비 제3사단	10군단	10군단, 1개 사단, 187공수연대전투단	10군단, 한국군 1~2개 사단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부대
10군단의 상륙지역	군산	인천	인천	인천
추가 상륙지역	-	-	군산	주문진
추가 상륙지역의 운용병력	-	-	1개 사단, 187공수연대전투단	한국군 1~2개 사단
작전 계획의 완성	1950. 8. 30	1950. 8. 24	1950. 9. 8	1950. 9. 11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은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이 개별 상륙작전이 아니라,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인천지역의 상륙작전을 기준으로 미 제8군이 반격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작전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즉 4가지 작전 계획은 개별적인 작전계획이 아니라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 5. 결론

인천상륙작전은 확실히 수세에 몰렸던 유엔군과 한국군으로 하여금 반격을 통한 복진을 가능하게 한 성공적인 작전이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은 서울을 장악함으로써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낙동강 전선의 적군을 와해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인천항만 시설과 김포공항 그리고 철도의 중심지인 서울을 장악함으로써 복진 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나치게 작전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만 기존의 연구가 집중된 나머지 인천상륙작전 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내용과 그 함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의 기반이 되었다고 알려져 왔던 군수참모시리즈 LD-SL-17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작전 계획은 전쟁 초기인 7월에 수정 보완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계획이 바로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에 그대로 연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부적인 작전 계획이 그대로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미 전쟁 이전 극동군사령부가 전쟁 발발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부른 예단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본 논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이 갖는 의미가 개별적이라기보다는 각각의 계획이 유기적 관계라는 것이다. 즉 100-A는 100-B 계획의 양동작전(feint) 계획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유사시 실제 계획으로도 활용될 수 있었던 작전이었다. 100-C 계획과 100-D 계획은 100-B 계획의 보완적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천상륙작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만약 미 제8군이 낙동강 전선에 구축된 북한군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

에 대한 보완책으로 100-C 계획에서는 군산지역에 대한 상륙을 통해 미 제8군을 대전에서 지원하는 보완 상륙 작전이며, 100-D 계획에서는 강릉-주문진 지역에 대한 추가 상륙을 통해 남한 지역 내의 북한군을 포위 섬멸하려는 계획이었다.

(원고투고일 : 2019. 1. 13.,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인천상륙작전, 크로마이트 작전, 군수연구 LD-SL-17, 맥아더, 라이트, 극동군사령부, 합동전략기획단

## <참 고 문 헌>

-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 MA, RG 38, Papers of LGEN Edward M. Almond, Chief of Staff, SCAP, Commanding General, X Corps, FECOM.
- NARA,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Office of the Director of Plans & Operations, Top Secret : American-British-Canadian Correspondence, Box 454.
- NARA,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General Decimal Files, 1950-1951(Top Secret) General Correspondence Relating to Training and Operations, 1950-52.
- 고든 L. 리트먼 지음 · 김홍래 옮김, 『인천 1950』, 플래닛미디어, 2006.
- 고지마노보루 저 · 유승호 역, 『한국전쟁 전모 제1보』, 송산출판사, 1988.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3권 - 낙동강방어작전기』,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70.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전투사 - 인천상륙작전』,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국방군사연구소, 1995.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 Malcolm W. Cagle·Frank A. Manson, 신형식 역, 『한국전쟁해전사』 (서울: 21세기 군사연구소, 2003).
-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 브루스 커밍스 지음·김동노 외 옮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1.
-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4권 - 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전쟁기념사업회, 1992.
- 견수찬,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논의의 검토」, 『인천역사』 제1호,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소, 2004년 가을.

- 김광수, 「인천상륙작전과 북한군의 대응」, 『군사연구』 제130집, 육군본부, 2010년 12월. DOI : 10.17934/jmhs..130.201012.69
-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제2호, 국방군사연구소, 1999.
- 김현기,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이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 『군사논단』 17, 한국군사학회, 1999년 1월.
- 박명림, 「열전의 인천 1950년, 그리고 평화의 인천 2005년; 두 인천의 역사적 조망의 몇몇 비교범주들」, 『제4회 월미평화포럼-황해,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 교류의 바다로』, 2004년 9월 17일.
- 박명림, 「한국전쟁: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1) - 1950년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략연구』 통권 10호, 1997.
- 서주석, 「인천상륙작전의 결정경위와 전개과정」,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2000.
- 송인영,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평가 및 의의」,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학술회의-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2000.
- 오동룡, 「켈로 부대장 최규봉 용의 ‘인천상륙작전 비사」, 『월간조선』 제24권 9호, 월간조선사, 2003년 9월.
- 이동원, 「미군의 월미도 원주민 학살사건」, 『말』 통권 265호, 월간 말, 2008년 7월.
- 이상호,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사전인진설과 전략적 후퇴에 대한 반론」, 『군사』 제59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6월. UCI : G704-001528.2006..59호.001
-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 제109호, 한국역사연구회, 2018년 9월.
- 이상호박성진, 「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정보 작전」,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년 가을. DOI : 10.25024/ksq.36.3.201309.288
- 이선호, 「915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평가」, 『북한』 통권 405호, 북한연구소, 2005년 9월.
- 이의환,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진 월미도 원주민들의 아픔」, 『황해문화』 통권68호, 새얼문화재단, 2010년 가을.
- 조상근, 「한국전쟁에서 중공 지도부의 인천상륙작전 예측과정」, 『군사』 제71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년 6월. DOI : 10.29212/mh.2009..71.55
- 조성훈,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한 맥아더 역할의 재평가」,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3

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년 가을. UCI : G704-000772.2006.29.3.008  
조화유,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클라크 대위의 수기」, 『월간조선』 26권 10호, 월간조선사, 2005년 10월.

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50-1951: They came from the north*(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Blair, Clay,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Times Books, 1987).

Clayton James, D., *The Years of MacArthur, Volume III - Triumph and Disaster 1945-1964*(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5).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Appleman, Roy E.,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Weintraub, Stanley, *MacArthur's War: Korea and the undoing of an American Hero*(New York: The Free Press, 2000).

Bevilacqua, Allan C., "Inchon, Korea, 1950-The Landing that couldn't be done", *Leatherneck*, September 2000.

Bradford, Jeffery A., "MacArthur, Inchon and the Art of Battle Command", *Military Review*, Mar/Apr. 2001.

Dorschner, Jim, "Douglas MacArthur's Last Triumph", *Military History*, September 2005.

Heinl, Robert D., "The Inchon Landing: A Case Study in Amphibious Planning", *Naval War College Review*, Spring 1998.

Paschall, Rod., "A bold Strike at Inchon", *Military History*, 2002.

<Abstract>

## The Implications and Four Plans of ‘Operation Chromite’, Inchon Amphibious Operation

Lee Sang-Ho

This paper reviews the overall ‘Chromite Operation’ plan based on the MacArthur Memorial Collection documents and compares the details of the four operational plans. We will also look into the relevance of the contingency plan SL-17, which was prepared just before the war that some researchers had suggested, to develop in early July, LD-SL-17.

In general, when discussing the operation plan of the Inchon Landing Operation, the Chromite Operation Plan, there are three operational plans listed as 100-B, 100-C and 100-D. And these operation plans have been understood as different landing areas – Incheon, Gunsan, and Jumunjin – respectively. However, if you analyze the plan carefully, this is a mis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each operation plan is based o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and if the US 8th Army does not break the front line of the North Korean Army on the Nakdong River Front, it will undertake an additional landing operation.

LD-SL-17(Logistic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 LD-SL-17) prepared by the US Army Chief of Staff (G-4), which has been known to be the basis of the Chromite Operation Plan, 17). The plan was revised in July, early in the war. But as we have seen, it is unlikely that this plan is directly linked to the Chromite operation plan. The detailed operational plan does not fit.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claim that the pre-war Far East forces in Korea already predicted and prepared for the outbreak of war.

In addition, we can confirm that each project has an organic relation that the meaning of the four chromite operation plans are optional. In other words, 100-A has a meaning as a fake attack plan of the 100-B plan, and it was an operation that could also be used as a real plan in case of emergency. The 100-C plan and the 100-D plan were complementary plans of the 100-B plan. In other words,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Plan will proceed as planned, assuming the US 8th Army, which can not break the North Korean Front along the Nakdong River, and as a complementary measure, the 100- And the 100-D plan was to annihilate the North Korean forces in South Korea through further landing in the Gangneung-Jumunjin area.

Key words : Incheon Landing Operation, Chromite Operation, Logistic Study Covering Operations in Korea(LD-SL-17), Douglas MacArthur, Edwin K. Wright, Far East Command,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